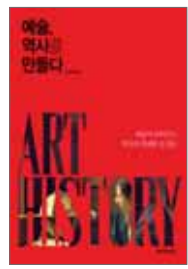


역사 키워드로 풀어낸 예술 이야기



예술, 역사를 만든다
전원경 지음

현대인들은 무수히 많은 예술작품을 만난다.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나 빛깔에 따라 저마다 다른 감동을 받는다. 예술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코드는 역사, 인물,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 가운데 역사는 가장 일반적인 코드다.

시대를 초월해 뛰어난 예술작품은 당대의 정신과 감수성을 훌륭하게 표현한다. 역사를 모르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반쯤 가려진 작품을 보는 것과 같다.

역사와 예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세계 역사와 예술을 우리의 시각으로 풀어낸 책이 나왔다. 전원경 인제대 겸임교수가 펴낸 '예술, 역사를 만든다'는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2년 여에 걸쳐 진행된 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의 내용을 정리하고 300

여 점의 도판을 담아 책을 완성했다.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저자는 예술이 역사의 큰 흐름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반대로 각 시대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조망한다.

책은 연대기 순으로 구성돼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작품들을 보여준다.

이제까지의 예술사 책이 주로 회화만을 다루었던 반면 '예술, 역사를 만든다'는 장르를 뛰어넘는다.

회화를 바탕으로 음악, 연극, 문학, 발레 등을 다루고 있어 세계 예술의 문화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역사와 예술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장르 간 구분이 사라지고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한 예로 19세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달라진 여성들의 삶은 드가나 톨루즈로 트네크의 그림 '세탁부'에서 드러나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도 당시 궁핍했던 여성들의 삶이 이어진다.

이렇듯 책은 누군가에게는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누군가에게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각각의 시각에 따라 한권의 풍성한 문화사로 다가온다.

〈시공아트·2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동차 폐해는 어떻게 약자에 집중되는가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우자와 히로후미 지음

1가구 2자동차 시대라 해도 될 만큼 집집마다 승용차 보유대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가 자유이지만 자동차를 통해 얻는 편의만큼 비용을 감당하고 있을까. 물론 개인이 부담하는 기름값, 통행료,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막대한 도로 건설비, 공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과 자연파괴까지 사회가 떠안아야 할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과연 자동차 소유자는 그 비용을 공정하게 치르고 있을까.

일본을 대표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가 펴낸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은 자동차에 감춰진 사회적 비용을 파

헤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도로, 주거환경 등의 '사회적 공통자본'을 독점하는데 따른 폐해가 어떻게 약자들에게 집중되는가를 분석한다.

자동차가 상징하는 시장경제의 불평등 구조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책에서 제시한 모델에 따라 한국에서도 혼잡비용, 대기오염, 교통사고 손실액 등을 따져보면 30~57조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 구성원들에게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히고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자동차의 폐해는 운전할 수 없는 노약자, 어린이 등 능력이 없는 경제 약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본다. 자동차를 위한 경제학에서 인간을 위한 경제학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사월의 책·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씨알' 함석헌 선생의 사유와 실천

함석헌사상 깊이 읽기 1~3

김영호 지음



"뜻은 우주와 인생을 깨우는 것입니다. 뜻은 맨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지금입니다. 모든 것은 뜻에서 나왔고 뜻으로 돼가고 돌아옵니다. 뜻을 깨닫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함석헌의 '새해의 말씀'에서)

20세기 한국 지성사와 사회사에 큰 획을 남긴 인물 가운데 함석헌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함석헌 선생(1901~1989). 그는 '씨알'이라고 이름 붙인 민중을 한국사의 주제로 본 역사학이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 위에 인도사상, 유교, 노장철학을 융화해낸 다원주의 사상가였다.

한국의 많은 지성들이 함석헌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함석헌 선생은 20세기 한국 땅의 고난과 상처를 온몸에 새긴,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다. 한마디로 그는 격변의 20세기를 온몸으로 살아



20세기 한국 지성사와 사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함석헌 선생은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 낸 선각자였다. 〈한길사 제공〉

나며 한국 사상사에 한 획을 그은 시대의 선각자였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뛰어난 문필가로 알려져 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인용된다.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말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말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의 사유와 실천을 돌아보는 책이 출간됐다. 인하대 김영호 명예교수가 펴낸 '함석헌사상 깊이 읽기'는 함석헌의 저작 가운데 사상의 핵심을 가려 뽑은 글들을 모은 책이다. '사상의 형성'(1권), '생각과 실천'(2권), '씨알·생명·평화'(3권) 등 모두 3권으로 구성됐다.

책의 저자 김영호 교수는 1960년대 중반 중앙대학교에서 함석헌 선생의 제자 반 중앙대학교에서 함석헌 선생의 제자로 인연을 맺었다.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함석헌사상과 철학 연구에 몰두하면서 가르침을 알리고 실천하는데 힘써왔다.

저자는 마치니, 웰스, 헉슬리, 간디 등 함석헌 선생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과 저작을 추적한다.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영역도 광범위하다. 이들을 통해 함석헌 선생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선 세계주의를 형성하는 단초를 얻었다고 본다.

30대까지가 사상의 토대를 닦는 시기였다면 40대부터는 비폭력주의와 평화사상을 바탕으로 문명 비판과 사회개혁에 매진했다. 생의 후반기인 60~80대에는 씨알사상, 생명사상을 꽃피웠다.

역사는 함석헌사상을 이해하는 키워드다. 그의 역사관은 민중, 고난, 종교, 진보를 특징으로 한다. 민중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그의 민중사관은 다시 고난사관을 낳는다. 그는 우리 민족을 '수난의 여왕'으로 칭했으며 우리 속

에 '구원'의 열쇠가 들어 있다고 보았다.

함석헌사상의 토대가 되는 다른 키워드는 종교다. 그에게 종교는 사상의 터전이었다. 그는 자기 종교의 울타리에만 매이지 않고 '큰 하나됨'(한)을 추구했다.

역사와 종교에 기반한 그의 지성은 사회적 행동 속에서 발현되었다. 식민지와 독재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체제에 맞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견지했다. 그의 양심과 사고가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함석헌사상의 핵심은 '씨알'로 수렴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이자 주체라는 사상이다. 그는 '씨알'의 역동성과 생명성을 강조했다. 씨알은 뿌리다 더 아래 밑바닥에 심겨져 움트지

만 그 작은 것 속에 전체와 우주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한길사, 1권·3권 2만2000원, 2권 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그리트 그림을 둘러싼 환상적인 모험담



빛의 집
디디에 반 코벨라르트 지음

세계적 권위의 공쿠르상 수상 작가인 디디에 반 코벨라르트는 영화 '인노센트'의 원작이자 서른 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해온 베스트셀러작가다. 이번에 펴낸 장편 '빛의 집'은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명화 속으로 들어간 한 인물의 특별한 모험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은 한때 잘나가는 약역배우였지만 애고 없이 찾아온 변성기로 모든 걸 과

거의 영광으로 추억하게 된 제레미 레스다. 몰락한 우명인의 근황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에 간신히 얼굴을 비출 뿐 그는 뚜렷한 미래도, 변변한 직업도 없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빵사 자격증을 땀지만 얼마 후 단속반에 걸려 해고당하고 만다.

제레미 레스는 여자 친구와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프라포자도 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베네치아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고 만다. 그는 방황하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을 발견한다. 작가는 실존했던 작가의 그림을 매개로 환상성, 유머, 뇌 과학, 휴머니티를 절묘하게 녹여낸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우리말속에 담긴 신화·역사...



내 생애 첫 우리말
윤구병 지음

"우리가 쓰는 말은 정말 우리말일까? 옆에 여덟은 우리말이 아니다. 아이들이 쓰는 단순한 말 말고는 한자말, 일본말, 영어 등 남의 말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말이 생기고 지금껏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농부철학자' 윤구병 선생이 들려주는 우리말 이야기 '내 생애 첫 우리말'은 70여 년을 우리말로 살아온 저자가 처음으로

로 펴낸 우리말 책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우리말 이야기, 처음 듣는 우리말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말 속에 담겨 있는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풀어놓은 책이다. "우리가 '위(甬)'라고 하는 낱말의 우리말은 '양'이다. '양껏 먹어라'라고 할 때, 양은 위의 우리말이다. 위 크기만큼 먹으라는 뜻의 우리말이 힘센 중국의 말로 대체되었다."

저자는 일제 시대에만 우리말 우리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훨씬 나라를 등에 업고 지배하려는 세력에 의해 우리말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천년의 상상·1만7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우리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전남지역의 근로자나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컨트롤 타워

2016 전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 대상 : 전남 소재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1,500개
- 기간 : 16년 6월~9월
- 내용 :
 - 인력현황, 신규 채용자 요구역량, 재직자 직무별 훈련수요
 - 조선, 화학, 철강, IT, 농공단지, 에너지밸리 등 6개 분야 세부 조사
 - 전라남도 특화·전략산업 분야 조사·분석
 - 중소기업의 인력 및 훈련 수요 실태 파악
 - 지역 산업 인력양성계획 수립
 - 지역 내 훈련 직종 및 훈련규모 확정의 기초로 활용

전남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 전남의 특화·전략산업분야 분석
- 중소기업 인력 및 훈련 수요실태 파악
- 훈련직종 및 규모 확정

공동(파트너)교육훈련센터 심사·선정

- 중소기업 인력 수요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공급
- 전남지역 공동(파트너)훈련센터 선정
- 훈련생 모집 및 교육훈련 실시지원

전남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 중장기(연단위 포함) 인력 및 훈련 공급 계획

공동채용 지원

- 수급기업과의 채용 협약 체결
- 산업체, 고용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채용 지원

인적자원개발 종합서비스

- NCS(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기업 컨설팅 사업
- 일학습병행제 지원전문기관 선정 등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목포상공회의소

■ 사 / 업 / 문 / 의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목포상공회의소) TEL) 061-273-0990~1

■ 훈 련 과 정 문 의 :  국립목포대학교 061-450-6288  한국폴리텍V대학 순천캠퍼스 061-720-1524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061-450-7240